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2018.8.5.(토) ~ 2018.8.25.(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밴쿠버의 가운데에 있으며 다운타운과 20-3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시설은 순천향대학교와 비슷하고 규모는 순천향대보다는 작았습니다. 학교 내에 스타벅스, 서브웨이, 팀홀튼 카페 등의 가게가 있고, 간식이나 음료를 사먹을 수 있는 자판기가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한국과는 좀 다른 분위기로 방학기간이라 전체적으로 여유롭고 학생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일본, 대만 등에서 온 학생들과 다 같이 모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후 리스닝 테스트를 통해 수준별로 반을 나누게 됩니다. 한반에 보통 16명 안팎으로 배정됩니다. 저희 반은 캐나다인 여자 선생님이 담당하셨고 한국인 9명 일본인 6명 대만인 1명이 있었으며 항상 4명씩 조를 만들어 주제를 주고 그것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식이었습니다. 수업은 오전 9시에 시작되고 10시 반에 쉬는 시간이 있으며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후 1시부터 3시까지 오후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반은 오전수업과 오후수업 시작 전에 항상 10분정도 게임을 해서 항상 하루 수업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숙제는 다른 반 보다는 많은 편 이였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3번 정도 교제에 있는 홈스테이가족 인터뷰 등의 숙제를 내주었으며 일주일에 1번은 저널을 써오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교제는 바인더에 종이가 끼워져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무거웠습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Activity 종류 : 디스커버리 밴쿠버, 카약킹, 아쿠아리움, 뮤지엄 오브 밴쿠버, 휘슬러 준비물 : 선크림, 모자, 선글라스, 간식, 물 등 디스커버리 밴쿠버는 밴쿠버를 돌아다니면서 무엇이 있는지 투어를 하게 됩니다. 오후 3시 정도까지 걸어나가기 때문에 편한 신발과 선크림, 선글라스를 필수로 가져오시는게 좋습니다. 카약킹은 옷이 많이 젖지는 않기 때문에 따로 수건이나 옷을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모자와 선크림, 선글라스는 필수이며 긴팔과 긴바지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아쿠아리움과 뮤지엄오브 밴쿠버는 오전수업을 한 후 오후에 가게 됩니다. 실내이고 오랜시간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준비해 갈 것은 없습니다. 휘슬러는 생각보다 춥지 않았습니다. 그 때의 날씨에 맞춰서 옷을 입으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첫 일주일 정도는 햇빛이 강해서 살이 타기 쉽지만 한국만큼 덥진 않았습니다. 반팔 반바지를 입고 선크림을 바르고 다니면 딱 적당한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조금 선선해지면서 겉옷을 챙겨 다녀야 했고, 마지막 주에는 기모가 있는 후드티를 입을 정도로 쌀쌀했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홈리스들이 생각보다 많고 가끔 위험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른 시간에는 매우 안전하고 사람도 많아 위험하지 않지만 늦게 귀가할 경우 집으로 가는 길이 어둡고 가로등이 없거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o)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홈스테이 집은 보통 2층 주택입니다. 저는 조금 큰 2층 주택의 2층방을 썼습니다. 방도 넓고 창이 커서 햇빛도 잘 들었으며, 화장실도 크고 좋았습니다. 홈스테이 가족은 친절해서 좋았으며 다른 홈스테이와는 다르게 규칙이나 유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샤워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정해준 통금시간은 지켜야 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o) 홈스테이 () 외부식당 (o)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아침은 홈스테이 집에서 주로 빵에 피넛버터를 발라 먹거나 시리얼을 먹었으며 점심은 홈스테이 부모님이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홈스테이 음식을 먹었을 때 너무 짜고 입맛이 맞지 않아서 말씀드린 후 점심을 항상 샌드위치로 싸주셨습니다. 점심은 보통 학교 카페테리아를 이용하거나 카페테리아에 사람이 많으면 스튜던트 유니온을 이용했습니다. 카페테리아 보다는 스튜던트 유니온이 더 한적하고 좋았으며 작은 테이크아웃 카페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녁은 보통 밖에서 사먹었으며 가격이 조금 비싸고 팁과 택스 계산이 복잡할 수 있지만, 분할 계산이 잘 되어 있어서 익숙해지면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을 밖에서 먹을 시 꼭 홈스테이 가족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저녁을 밖에서 사먹으면 다양하게 먹고싶은 것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끔 홈스테이 가족이 외식을 하는데 데려가 같이 외식을 하기도 합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보통 학생들은 zone1에 홈스테이 집이 있었지만 저는 zone2에 살아서 다른 학생들보다는 집이 좀 멀리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 30분이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집에서 5분정도 걸어서 버스정류장에 갔고 버스를 타고 스카이트레인까지 간 후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랑가라역에서 내려 학교까지 5분정도 걸어갔습니다. 미리 버스시간을 알아두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버스 배차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버스시간을 잘 알아보고 집에 귀가해야 합니다.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경우 버스 배차 간격 때문에 더 늦게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리 버스시간을 봐두지 않으면 많게는 30분정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1,858,700	출국 전 사전 납부
쇼핑,기념품	530,000	
식비	400,000	
입장료,추가교통비	90,000	
유심	80,000	
합계	11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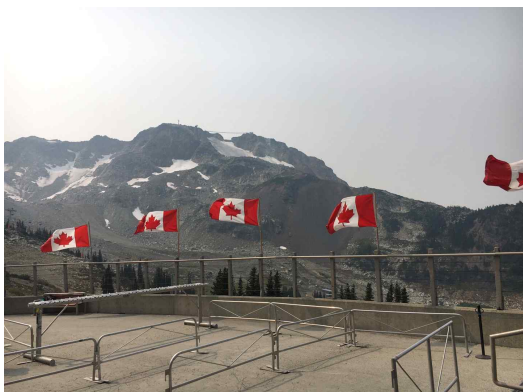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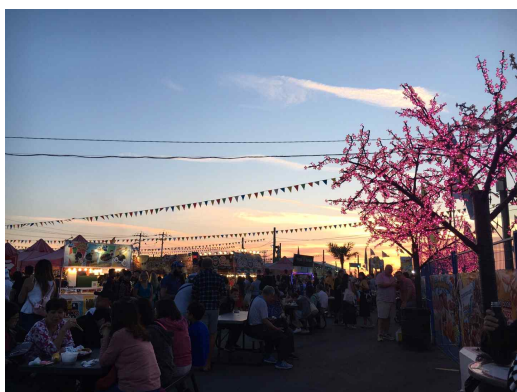
여름이라고 여름옷만 챙기기 보다는 긴팔이나 긴바지 혹은 겹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엔 더울 수 있지만 점점 추워집니다. 옷을 많이 가져가지 않고 가서 사 입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건을 살 때나 밥을 먹을 때 택스가 붙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심칩을 한국에서 사가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저는 국제전화가 가능한 유심칩을 구매했지만 카카오톡 전화를 사용해도 문제없고 데이터도 생각보다 많이 쓰지않기 때문에 굳이 비싼 유심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다른 나라 친구들과 함께 영어를 공부할 수 있다는 기회는 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나라 친구들과 다른 나라의 문화와 영어를 더욱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홈스테이를 하면서 새로운 음식과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제 스스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학교에 일본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도 조금씩 배울 수 있었고 일본인 친구들과 방과 후에 같이 놀러가고 하면서 영어 스피킹에 있어서 더욱 자신감이 생기고 실력도 훨씬 늘릴 수 있는 값진 기회였습니다. 학교를 가는 시간 이외에는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었기 때문에 관광도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주저 없이 한 번 더 갈 것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스팀클락	키칠라노 해변
	
영화관	빅토리아 아일랜드 부차드 가든
	
휘슬러	리치몬드 나이트 마켓